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구찬미(Chan Mi Koo)¹, 정연경(Yeon-Kyoung Chung)²

E-mail: cmk@ewhain.net, ykchung@ewha.ac.kr



¹ 제 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2-01-17
최초심사 2022-01-24
게재확정 2022-02-09

ORCID

Chan Mi Koo
<https://orcid.org/0000-0003-2736-4691>
Yeon-Kyoung Chung
<https://orcid.org/0000-0001-7125-9827>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historical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are not only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in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cience, but also important historical content that students and the public may be interested in. In this study, among the 350 institutions designated as public institutions as of 2021, 339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were investiga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217 (67%) out of 326 (96.2%) public institutions compiled a total of 516 institutional histories.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the compilation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utilization of user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ilation status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by six elements: compilation time, target period, department in charge, budget and required period, accessibility, and regulations.

Keywords: 역사 기록, 아카이브, 역사 편찬, 공공기관의 역사, 기록정보서비스
historical records, archives, history compilation, history of public institution,
reference service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이들 공공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조직의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 등으로 기관의 역사를 편찬하고 있다. 기업의 역사가 국가 역사 서술의 중요한 자료이며(최상훈, 1996)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지적 자산인(강동식, 2000)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역사 기록인 기관사(機關史)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기록 관리가 미흡하여 정책자료나 역사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였다(이영학, 2002). 핵심 기록들의 일부가 국외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얼마나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요 문서는 대부분 빠져있다(정병준, 1994). 더구나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책문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주요 정책회의록에도 논의과정이나 회의내용은 없이 회의 안건명이나 결정사항만을 기록하였다(이영학, 2002). 이에 시민들에게도 효과적으로 공개되지 못하였고(이영학, 2002) 연구자들도 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원활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이승억, 1999).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의 부재와 결탁, 기록서비스 전략의 부재, 기록의 비공개 관행 등으로 중요 기록을 열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곽건홍, 2018). 공공기관은 이러한 결락을 메울 수 있는 역사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되지 않거나 기관 내부에서 생산한 1차 사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사(社史) 편찬을 위하여 기록을 발굴하여 수집도 하고(최정애, 2005), 비공개 기록물을 분석하여(강동식, 2000)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공식적으로 편찬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관사(機關史)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기록의 편찬이나 출판은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록관은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출판으로 자료가 더 널리 이용됨으로써 기록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Pugh, 1992). 기록관이나 기록관리 담당자는 기록을 이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직의 역사인 사사(社史) 편찬사업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최정애, 2005). 이에 조직의 역사 편찬 과정에서 역사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전문가의 채용으로도 이어졌다(Yuko, 2014). 따라서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을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기록의 편찬으로 인식하고 기록관리담당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록관리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을 위한 절차, 지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1.2.1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Yake(2000)은 기록관이 지식의 창조와 조직 학습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을 지원해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식 브로커(knowledge broker)로서 지식을 전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Pugh(2005)는 기록관은 계속 이용 가능한 기록을 식별하고 보존하여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영숙(2007)도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실무자가 업무수행 시 필요한 표준, 매뉴얼, 지침 등을 단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설문원(2008)은 서비스 기관이나 다양한 콘텐츠 제공 기관으로서 기록의 활용에 대한 기록관의 사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설문원(2012)은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기록자료 활용, 기록을 통해 주제를 설명하는 콘텐츠 구조 설계, 기록물 기술 DB와의 연계, 이용자층을 고려한 구조 등을 제안하였다. 윤은하(2012)는 아웃리치, 대중 홍보, 교육과 사후 만족도 조사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이용자와 긴밀한 의사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Duff와 Yakel(2017)은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인 ‘archival interaction’을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으로 제안하고, 이는 이용자 요구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로서 편찬에 대하여 Johnson(1967)은 아카이비스트가 기록의 선별에 대한 경험과 자료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에게 기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1차, 2차 자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출판에 있어서 편집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O’Toole(1997)은 기업의 역사 기록 출판을 통해 아카이브 서비스를 재평가하고 기업의 기록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1999)는 기록관의 대중 프로그램에는 전시회, 세미나, 투어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 서적 출판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조용성(2016)은 역사 기록 편찬은 기록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역사를 제공하는 콘텐츠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공식 편찬 행위에 대해 힘을 실어줄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cCausland(2017)는 출판은 아카이브의 또 다른 중요한 전통적인 대중 프로그램 활동이며 인쇄 또는 디지털 출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희석(2018)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기록관의 전문성이 녹아든 차별화된 편찬이 필요하며 편찬 장기계획 설정, 편찬물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의 편찬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록관리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기록과 기관의 역사 편찬

기관이나 기업의 역사 편찬에 대한 국내 연구로 김동운(1996)은 많은 기업이 귀중한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회사사를 출판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기업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상훈(1996)은 기업사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개발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역사서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며, 기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업사의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저술하기 위하여 기업 자료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 활동을 벌여왔다고 하였다. 김재덕과 지호원(2001)은 사사 편찬이 긴 편찬 주기와 경력자의 부재로 인하여 경험과 지식이 전수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김재남(2002)은 기록관리와 사사 편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사 편찬을 기록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화경(2005)은 사사 편찬을 완료한 후에 수집하고 활용한 사료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최정애(2005)는 사사 편찬 인력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여 대행업체나 타사 담당자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얻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기상(2011)은 기관의 역사 편찬은 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연구자료 확보 및 역사기록 관리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조용성(2016)은 역사기록 편찬에서 기록의 부재와 객관성 문제, 맥락정보 확보의 필요성, 가치 중립적인 사료 고르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 편찬 행위에 대해 힘을 실어줄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은진과 이유진(2019)은 학교사 편찬은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사사 발간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외연구로 Broehl(1954)은 기업은 정확하고 함축적인 기록 보존의 수단으로 기업사를 사용하며 잘 만들어진

기업사는 교육자, 대중, 기업내부의 활용 등을 위한 기업의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McLellan(1966)은 아카이브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회사의 연대기적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rnst(1970)는 기업 역사는 기업의 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아카이브에 축적된 기업 기록을 통해 작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derson(1981)은 미국의 금융 기업인 Wells Fargo가 기업의 역사기록관리와 기업사 등 역사기록 출판에 기여하도록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았다. Smith(1982)는 역사가들의 기업 역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구받기 시작했으며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사와 기록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Eulenberg(1984)는 창립기념일에 회사 역사의 필요성이 분명해지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기업 정체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기업 역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다고 하였다. Wirth(1997)는 기업사에 관한 대중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자들은 글로 정리된 기업사 편찬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日本 經營史研究所(2006)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사를 선정하여 優秀會社史賞을 시상하였는데, 질적으로 우수한 사사의 출판을 독려하기 위해서 역사정보에 대한 사항, 공개 정도, 연표 충실도, 참고문헌, 객관성, 용이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Force(2009)는 역사기록이 기업과 기업의 웹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 역사 섹션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Loew(2014)는 기업의 역사와 기록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키비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사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owlinson, Hassard, Decker(2014)는 조직의 역사는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을 설명하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Yuko(2014)는 최근 기업의 설명책임성, 법 준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사의 출판을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관이나 기업의 역사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기록에 바탕한 신뢰할 수 있는 역사 편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록정보서비스와 기관사(機關史)

2.1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SAA) 용어사전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이용자 서비스(reader service 또는 reader’s services)로서 기록보존소의 시설이나 컬렉션을 사용하는 고객의 이용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Pearce-Moses, 2005). 그리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은 기록물 관리기관의 사명과 관련된 요구를 가진 이용자 특히 잠재적 그룹에게 이들의 요구를 식별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earce-Moses, 2005).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정보제공서비스(reference service)는 넓은 의미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확장서비스(outreach program)는 기록관이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의 기록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가가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기록관에서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록관이나 기록을 홍보하는 활동, 교육, 전시, 출판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에는 기록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와 기록콘텐츠, 편찬물, 전시물 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기록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이 있다(설문원, 2008). 그리고 홍보물, 연보, 해제집, 번역집, 학술서, 전문서 등의 책자 발간 및 출판이 홍보 서비스로 분류된다(김지현, 2018).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 중 하나인 기록 편찬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 편찬은 기록관에서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 기록을 대상으로 역사학자와 아키비스트가 협력하여 특정 주제나 사건에 관한 기록을 편집하거나 영인

하여 출판하는 활동이며, 편찬 시 기록의 내용을 해석하고 재편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편찬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술 활동을 자극한다고 하였다(한국기록학회, 2008). 그리고 출판은 기록관이 소장기록을 홍보하고 기록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각종 팜플릿, 기관지 등을 간행하는 활동이며, 넓은 의미의 출판에는 기록에 기반한 편찬도 포함된다고 하였다(한국기록학회, 2008).

과거 아키비스트와 역사가는 기록 보존소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록의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록 편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Millar, 1986). 그리고 기록물의 수집뿐만 아니라 편찬 작업을 중요시하여 역사 메뉴스크립트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김지현, 2014) 점차 기록관리 업무는 기록의 수집, 관리 및 보존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영숙, 2007). 그러나 기록의 이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록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기록의 편찬 등 새로운 이용자를 창출하기 위한 대중 프로그램(public program)의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기록의 활용과 홍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McCausland, 2017). 기록은 조직 활동의 결과물이자 과정의 산물로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내재해 있으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기록 안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콘텐츠로 가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설문원, 김익한, 2006).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활용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을 일반 대중이나 학술연구자 등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편찬·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편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정희석, 2018).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담당자는 기록의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편찬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국가기록원, 2018).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담당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사 편찬 업무를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편찬 업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2 기관사(機關史)의 의미 및 특징

기업뿐만 아니라 영리 및 비영리단체(협회, 병원, 학교, 관공서 등을 포함) 등 조직 시스템을 갖춘 다양한 기관에서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역사를 편찬한다(김후정, 2006). 이렇게 편찬되는 역사는 기관사(機關史), 기업사(企業社), 회사사(會社史), 사사(社史), 단체사(團體史), 조직사(組織史), 학교사(學校史)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사사는 각종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시계열에 따라 정리되고 비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종합적이며 영속적인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며(이한구, 2001) 기업의 역사정보는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지적 자산이다(강동식, 2000). 이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기업사를 국가 차원의 역사 서술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고 기업의 자료에 대한 연구로 서술된 기업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일반사의 필요 불가결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최상훈, 1996). 특히 기업에 대한 독점 피해, 소비자 보호, 공해 유발, 탈세 등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면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행동에 대한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기업은 국민적 홍보의 필요성으로 역사 편찬이 조명되었다(이한구, 2000).

또한 기업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역사서는 내부에서는 경영자나 관리자 등 내부 구성원의 교육, 회사의 전통이나 경영문화 전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외부에서는 주주, 거래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비자 및 지역주민,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독자층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이한구, 2000). 조직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구상하는 가장 힘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Seaman & Smith, 2012). 조직에서 역사는 조직의 과거, 현재 및 미래가 합쳐져 개인과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고,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며 조직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을 만드는데 활용된다(Ludmila, 2013). 특히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한데(Nye, 2008) 전략적 의사 결정, 미래비전 만들기과 전달, 조직 문화 유지 등에 조직의 역사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Boal & Schultz, 2007). 이와 같이 기관사는 기관의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자 지적 자산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관에서는 기관 전체 차원에서 기관사 편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관사가 양적으로는 기관이나 기업의 역사 편찬이 증가한 반면,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김동운, 1996). 역사 편찬 배경이 주로 창립 기념 행사의 하나로 추진되어 기념일에 맞추어 급하게 편찬되어 기념용이나 전시용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김동운, 1996). 많은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편찬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위원회나 편찬팀을 운영하여 기관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10년, 20년 등 몇 주년 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기관사 편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찬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을 대행사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최정애, 2005) 국내여론,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역사 편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박균용, 2020). 기관사 배포의 경우, 내부용 또는 대외비로 발간되거나 제한적으로 배포되어 외부 이용자는 기관사를 입수하기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사사 편찬을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비판을 감당해낼 만한 보편타당한 기술 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김용운, 2005) 역사 편찬에서 내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의 자료공유체계가 미흡하여 1차 자료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박균용, 2020), 자료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 수록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이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김동운, 2008). 이로 인해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에게도 외면을 받게 되었다(이한구, 2001). 사실을 왜곡한 스토리나 리더의 치적을 남기는 측면으로 해석되어 과장된 성공 스토리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Clifton, 201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이용에 대하여 내부요구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외부 연구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O'Toole, 1997) 때문에 사례연구의 유용성과 자료수집 어려움을 겪는 학술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문헌으로서 제대로 된 역사 편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김동운, 1996).

다양한 분야의 기관의 역사가 모이면 국가의 역사 기록이 된다. 결국 기관사는 국가 차원의 역사 서술에서도 중요한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가치있는 기관사 편찬을 위하여 기관사 편찬 과정이나 활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 분석

3.1 조사대상 및 데이터 수집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정의와 대상을 확인하였다. 동법 제4조(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나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월 29일에 배포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50개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36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준정부기관 96개와 국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식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218개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관의 설립연도와 기관사 편찬 관련 규정, 기관사 제목, 유형, 발행일, 예산, 소요기간, 이용가능 장소 또는 인터넷 주소, 편찬 당시 주관부서 및 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 기관사 편찬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21년 10월 3일에 총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3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1개 기관은 면대면으로 조사하여 총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총 339개 기관 중 종결하였거나, 처리지연 등의 사유로 10월 31까지 미회신한 기관 등 13개 기관을 제외하고 총 326(96.2%)개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3.2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

3.2.1 편찬 이력 및 계획

총 326개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기관사를 편찬한 이력이 있었고, 217개 기관에서 총 516건의 기관사를 편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기관사 편찬 계획에 대해서는 68개 기관에서 76건의 기관사 편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발행시기 및 대상 기간

발행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처음으로 1961년 10월에 ‘한국조폐공사 10년사’를 편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후 <표 1>과 같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이 미미하다가 1990년대에 63건(12.2%)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다가 2010년대에는 243건(47.1%)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공기관의 기관사 발행시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기타	합계
2건 (0.4%)	5건 (1.0%)	30건 (5.8%)	63건 (12.2%)	119건 (23.1%)	243건 (47.1%)	48건 (9.3%)	6건 (1.2%)	516 (100%)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의 발자취’, ‘발자취 100년’, ‘130년을 담다’, ‘since 1975’ 등 기관사의 제목에 나타난 편찬 대상 기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총 516건의 기관사 중에서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이 10년인 경우가 109건(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79건(15.3%), 30년 70건(13.6%), 40년 41건(7.9%), 50년 32건(6.2%)으로 나타났다. 100년 이상의 기간을 수록한 경우도 9건(1.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 주기로 편찬하는 경우가 90건(17.4%)으로 나타났고 ‘25주년’ 등 주년 기념으로 편찬한 것임을 표기하였으나 편찬 대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었다.

<표 2>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상	기타	합계
90건 (17.4%)	10건 (1.9%)	109건 (21.1%)	11건 (2.1%)	79건 (15.3%)	14건 (2.7%)	70건 (13.6%)	41건 (7.9%)	32건 (6.2%)	3건 (0.6%)	2건 (0.4%)	2건 (0.4%)	1건 (0.2%)	9건 (1.7%)	43건 (8.3%)	516 (100%)

3.2.3 예산 및 담당 부서

편찬에 소요된 예산을 공개한 경우는 55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평균 예산은 1.8억으로 조사되었다. 편찬에 소요된 기간을 공개한 경우는 58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1개월로 나타났으며 평균 소요기간 11개월로 조사되었다. 편찬 예산과 소요 기간에 대한 정보는 편찬 시기가 오래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외부로 공개가 곤란하여 미공개한 경우가 많았다.

편찬을 주관한 담당부서는 <표 3>과 같이 총 516건 중에서 홍보팀, 고객만족팀 등이 147건(28.5%)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편찬위원회, 발간위원회, 기념사업단 등 한시적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한 경우가 120건(23.3%)이었다. 경영기획, 전략기획, 정책기획 등 기획부서도 111건(21.5%)을 차지하였다. 기록관리부서에서 기관사 편찬을 주관한 경우도 1건 조사되었고, 기관사 편찬에 기록관리담당자가 참여한 경우는 74건(14.3%)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공공기관 기관사 편찬 주관부서

홍보, 고객만족	편찬위원회 등	기획	출판	기록관리	기타(조사·확산 등)	합계
147건(28.5%)	120건(23.3%)	111건(21.5%)	7건(1.4%)	1건(0.2%)	130건(25.2%)	516(100%)

3.2.4 유형 및 제공 방식

기관사의 유형은 중복을 포함하여 정사(正史) 309건, 화보(畫報) 135건, 야사(野史) 5건, 약사(略史) 75건, 테마사 3건, 백서(白書) 20건, 사료집(史料集)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의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인터넷 제공 여부는 총 516건 중 183건(35.5%)만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33건(64.5%)은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건은 판매용으로 편찬되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 총 333건에 대한 이용방법 질문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기관사를 편찬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건(7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가기록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공공기관 외부로 제공하지 않거나 오래전에 편찬되어 기관사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표 4> 인터넷 미제공 기관사의 이용방법

기관 방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이메일	이용불가	합계
257건(72.8%)	59건(16.7%)	1건(0.3%)	5건(1.4%)	11건(3.1%)	333(100%)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한 인터넷 URL을 조사한 결과, 총 183건 중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공공기관의 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경우가 178건(3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경우가 5건(9.3%)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관의 특성상 정사(正史)는 대외에 제공이 불가능하여 대외제공용으로 별도의 홍보본으로 제작한 요약본인 약사(略史)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이용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7건은 향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3.2.5 편찬 관련 규정

기관사 편찬 관련 규정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5>와 같이 ‘역사편찬 방침’이나 ‘사사제작 방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6건(5.0%)이고, ‘기록관리규정’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응답한 경우가 7건(1.4%)으로 조사되

었고 90% 이상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관련 규정

역사편찬 방침	출판 관련 규정	기록물관리 규정	기타 (직제규정 등)	없음	합계
26건(5.0%)	9건(1.7%)	7건(1.4%)	9건(1.7%)	465건(90.1%)	516(100%)

역사편찬이나 사사제작방침, 기록관리규정으로 응답한 경우 해당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규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에서 해당 규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역사편찬 방침’이나 ‘사사제작 방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고 1개 기관만 공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요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에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연구, 편찬, 발간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역사 편찬 및 발간계획 수립,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총괄, 연도별 역사 자료 종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명시하고 있었다. 편찬 원칙으로 ‘사관정립의 주체성, 사료고증의 정확성, 사료선정의 객관성, 사료서술의 공평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기록관리규정’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조사한 결과 3개 기관은 기록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1개 기관은 ‘기록물관리예관규정’에서 기관사 편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간행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에서 ‘생산한 간행물은 한국서지표준센터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으며 백서, 00년사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발간 등록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과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1개 기관은 기록관리담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기록물 편찬·전시·홍보’를 명시하고 백서, 연사(年史), 연보 등 기관의 역사와 관련된 간행물을 기록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하였고 간행물 관리 번호 부여와 기록관에 납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1개 기관은 기관사 편찬 관련 근거로 ‘기록관리규정’으로 답하였지만,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1개 기관은 기관사 편찬의 근거 규정을 ‘기록물관리요령’으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규정을 확인한 결과 ‘역사기록’이라는 별도의 장에 기관사 편찬·발행·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승인, 위원회 구성, 원고료 지급, 10년의 편찬 주기와 5년의 역사기록 수집 주기와 함께 사료고증의 정확성, 사료선정의 객관성, 사실 서술의 공평성 등 편찬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3.3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 분석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사 편찬 시기는 1990년대부터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한구(2001)의 연구에서 1980년대에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사 발간 붐이 급격하게 조성되어 기업체 외에도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도 사사를 출판하였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이한구(2001)의 연구에서는 이후 1997년말 외환위기로 사사 출판이 사양화된 시점까지의 연구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의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흐름을 보면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Yuko(2014)는 최근 기업의 설명책임성, 법 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사사 편찬이 기업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0년대 외환위기 극복 이후 기관사 편찬이 급증한 것도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에 대한 요구 증가와

기관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관사 편찬 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사 등 10년 주기의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기관사를 편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역사 편찬은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주년 행사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연사(年史), 연보(年報), 백서(白書) 등의 이름으로 매년 연사(年史)를 편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재남(2002)과 최정애(2005)는 조직의 역사 편찬이 10주년, 20주년 등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긴 편찬 주기로 주관부서나 담당자의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기관의 역사 편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매년 연사를 작성하면서 주요 이벤트에 대한 연표를 작성하고 관련 역사 기록을 잘 정리해 둔다면 이는 10년사, 20년사, 30년사 등의 기관사 편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셋째, 기관사 편찬을 주관하는 담당부서가 홍보나 고객만족팀 또는 기획부서가 대부분이다. 이는 기관사가 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내용이 과장되거나 객관적 서술에 한계점을 지적받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강동식(2000)은 사사가 홍보 책자로 만들어져 학문적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였고, Yuko(2014)는 사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관사 편찬을 홍보나 기획부서에서 주관하고 기록관리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록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기관사 편찬 보다는 성과 홍보에 치우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편찬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조직에서 기관사를 편찬하게 되면 기관사를 편찬한 후에 한시적 조직인 편찬위원회 등이 해체되고, 편찬 시 활용한 사료나 데이터는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김화경, 2005) 기관사 편찬을 위하여 수집한 역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나 기록과 기관사를 연계한 기록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기관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역사기록이 기관사를 편찬한 이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기관사 편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사 편찬 배경이나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서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기관사 편찬에 소요된 평균 예산은 평균 1.8억이고 평균 소요기간 11개월로 조사되었다. 편찬 시기가 오래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외부로 공개가 곤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평균 예산이나 소요기간을 볼 때 대부분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사 편찬은 기관 내부의 분위기 조성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여(임기상, 2011) 실제로 기관사 편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기획, 계획수립, 예산 확보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성공적인 기관사 편찬을 위해서는 사전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기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편찬된 기관사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불과 35.5%(183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64.5%(333건)가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관사에 연구자나 대중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기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기관 홈페이지 검색에서 기관사의 제목으로 검색하여도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기관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회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기관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72.8%(257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관사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사 편찬을 기획하는 시점에 활용과 배포 및 홍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사사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용 방법 중 하나이므로(Yuko, 2014) 전자파일이나 전자책 형태의 디지털 편찬을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몇몇 기관사는 특정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편찬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 기관사 편찬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관사 편찬을 기록관리담당자나 기록관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90%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사 편찬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몇몇 공공기관만 역사편찬, 출판, 홍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역사기록 편찬을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조용성, 2016) 기관사 편찬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여 업무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책임 하에 공식적으로 편찬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관사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기록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17개 (67%) 기관이 기관사를 편찬한 이력이 있었으며 68개 기관에서 76건의 기관사 편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에 기관사 편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기관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증가한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주로 10년 주기의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기관사를 편찬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매년 연사(年史)를 편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사를 편찬하고 관련 역사기록을 잘 정리하고 보존한다면 긴 편찬 주기로 인한 사료 부족이나 담당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기관사 편찬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사 편찬 업무는 주로 홍보나 고객만족팀, 기획부서나 한시적인 조직인 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었으며 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가 기관의 성과와 홍보에 치우쳐 기관사에 대한 신뢰도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역사기록으로서 가치있는 기관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록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록관리담당자가 기관사 편찬을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인 기록 편찬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사의 활용 측면에서 연구자나 대중들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기관사 편찬을 디지털 편찬, 기록콘텐츠 개발, 역사관 구축 등과 연계하여 기록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사 편찬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제도나 지침, 업무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사에 대한 해외 모범 사례나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져서 좀 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식 (2000). 기업 역사정보의 관리와 해석에 관한 동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28호.
곽건홍 (2018).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아카이브의 이용: 1970년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5, 209-233.
<https://doi.org/10.20923/KJAS.2018.55.209>
국가기록원 (2018).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v1.1). NAK/S 21:2018(v1.1).

- 김동운 (1996). 한국 개별기업사 연구의 현황. *경제학 연구*, 44(4), 157-194.
- 김동운 (2008). 한국에서의 회사사 발행 현황. *경영사학*, 23(2), 109-156. <https://doi.org/10.22629/kabh.2008.23.2.004>
- 김용운 (2005). 기업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사사편찬 디자인방향 제시 연구: 20년사 이상의 사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과학 시각디자인전공.
- 김재남 (2002). 사사편찬을 중심으로 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기록보존학협동과정.
- 김재덕, 지호원 (2001). 읽히는 사사 만들기. 서울: 삶과 꿈.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3.105>
- 김지현 (2018). 기록정보서비스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은글터, 305-330.
- 김화경 (2005). 기업사료 관리사례 연구: 메리츠화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 김후정 (2006). 기업이미지 전략을 반영한 사사 효과적인 사사 편찬디자인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1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출처: <https://alio.go.kr/>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1).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출처: <https://www.moef.go.kr/>
- 박균용 (2020). 국방역사서 편찬에 관한 연구. *軍史研究*, 149, 155-189. <http://dx.doi.org/10.17934/jmhs..149.202006.155>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IN)*, 3, 11-19.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news/viewPublicationList.do?bg_no=82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17-342.
<https://doi.org/10.16981/kliiss.43.2.201206.317>
- 설문원, 김익한 (2006).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분석에 기반한 역사콘텐츠 설계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63>
- 이승억 (1999). 정부기록 보존소 소장 한국현대사 자료. *한국역사연구회회보*, 36, 21-24.
- 이영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73-94.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2.073>
- 이영학 (2002).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 관리. *기록학연구*, 6, 265-278. <https://doi.org/10.20923/kjas.2002.6.265>
- 이은진, 이유진 (2019). 사립대학교 학교사 편찬절차 및 기록물 수집방안: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2(2), 43-56.
- 이한구 (2000). 선진국의 사사 발간경향. *경영사학*, 15(2), 235-256.
- 이한구 (2001). 한국의 회사사 발간경향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16(2), 197-215.
- 임기상 (2011). 행정사 편찬과 행정역사기록 수집 체계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교 기록관리전공.
- 정병준 (1994). 미국내 한국현대사 관련자료의 현황과 이용법: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4, 281-312.
- 정희석 (2018). 국가기록원 '편찬'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조용성 (2016). 대학기록관의 기록편찬 활동: 과제와 가능성. *대학기록관의 이용 서비스*.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2016년 추계 콜로키움 자료집, 13-20.
- 최상훈 (1996). 기업사서술의 발전과 기업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독일을 중심으로. *서유럽연구*, 2, 283-303.
- 최정에 (2005). 기업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사사를 편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Anderson, H. P. (1981). The corporate history department: the wells fargo model. *The Public Historian*, 3(3), 25-29.
<https://doi.org/10.2307/3377729>

- 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1999). A Manual for Small Archives. Available: https://www.aabc.ca/resources/Documents/6.Documents_Reference/Manual%20for%20Small%20Archives_Sept%202021.pdf
- Boal, K. B. & Schultz, P. L. (2007). Storytelling, time, and evolution: the role of strategic leadership in complex adaptive systems. *The Leadership Quarterly*, 18, 411-428. <https://doi.org/10.1016/j.leaqua.2007.04.008>
- Broehl, W. G. (1954). Should your company publish its history? *Management Review*, 43(12), 831-833.
- Clifton, J. (2018). Investigating the dark side of stories of “good” leadership: a discursive approach to leadership gurus’ storytel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56(1), 82-99. <https://doi.org/10.1177/2329488418796603>
- Duff, W. M. & Yakel, E. (2017). Archival Interaction. In Heather MacNeil & Terry Eastwood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CA: Libraries Unlimited, 193-223.
- Ernst, J. W. (1970). The business archivist: problems and perspectives. *The Business History Review*, 44(4) (Winter, 1970), 536-546. <https://doi.org/10.2307/3112673>
- Eulenberg, J. N. (1984). The corporate archives: management tool and historical resource. *The Public Historian*, 6(1), 20-37. <https://doi.org/10.2307/3377682>
- Force, M. (2009). Company history: corporate archives public outreach on fortune 100 company web sites. *Provenance*, 27, 24-50. Available: <https://digitalcommons.kennesaw.edu/provenance/vol27/iss1/5/>
- Johnson, J. K. (1967). The archivist’s role in the publication of documents. *The Canadian Archivist*, 1(5), 7-11. Available: <https://archivaria.ca/index.php/ca/article/view/12979>
- Loew, L. (2014). Do Archivists Have the Right to Write History? What is at Stake When Writing Your Own Company’s History? In Bieri, A ed. *Crisis, Credibility and Corporate History*. Cambridge: Liverpool University Press, 123-139. <https://doi.org/10.5949/liverpool/9781781381373.003.0004>
- Ludmila, M. (2013). Leadership and storytelling.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dership,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5(3), 83-90. <https://doi.org/10.1016/j.sbspro.2013.04.010>
- McCausland, S. (2017). Archival Public Programming. In Heather MacNeil & Terry Eastwood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CA: Libraries Unlimited, 226-244.
- McLellan, P. M. (1966). The boeing archival program. *The American Archivist*, 29(1) (Jan., 1966), 37-42. <https://doi.org/10.17723/aarc.29.1.w287834230674007>
- Millar, L. (1986). The decline of documentary publishing: the role of english-canadian archives and historical societies in documentary publishing. *Archivaria*, 23, 69-85. Available: <https://archivaria.ca/index.php/archivaria/article/view/11367>
- Nye, J. (2008). *The Powers to Lead*. 김원석 역 (2008). 리더십 에센셜. 서울: 교보문고
- O’Toole, J. M. (1997). *The Records of American Busines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ugh, M. J.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ugh, M. J. (2005).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2nd e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owlinson, M., Hassard, J., & Decker, S. (2014). Research strategies for organizational history: a dialogue between historical theory and organization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9(3), 250-274. <https://doi.org/10.5465/amr.2012.0203>
- Seaman, J. T. & Smith, G. D. (2012). Your company’s history as a leadership tool. *Harvard Business Review*, Dec 2012, 90(12), 44-52. Available: <https://hbr.org/2012/12/your-companys-history-as-a-leadership-tool>
- Smith, D. R. (1982). An historical look at business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45(3), 273-278. <https://doi.org/10.17723/aarc.45.3.c7q713vn64q7lu78>

- Wirth, K. (1997). Advocating business archives. Business Archives Section Newsletter, 1-7. Available: https://www2.archivists.org/sites/all/files/Wirth_AdvBusArch.pdf
- Yakel, E. (2000). Thinking inside and outside the boxes: archival reference services at the turn of the century. *Archivaria*, 49, 140-160. Available: <https://archivaria.ca/index.php/archivaria/article/view/12742>
- Yuko M. (2014). Seventy-Five Years of Toyota: Toyota Motor Corporation's Latest Shashi and Trends in the Writing of Japanese Corporate History. In Bieri, A ed. *Crisis, Credibility and Corporate History*. Cambridge: Liverpool University Press, 123-139. <https://doi.org/10.5949/liverpool/9781781381373.003.0012>
- 日本經營史研究所 (2006). 優秀會社史賞選考報告書. 출처: <https://www.jbhi.or.jp/houkokusyo.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ct No.17128
- Cheung, Hee-seok (2018). Analysis from the View of Records Management on National Archives compilatio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Cho, Yong-Sung (2016). Archives of the university archives: tasks and possibilities.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Archives 2016 Fall Colloquium Data Collection, 13-20.
- Choe, Sang-Hun (199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narrative and the role of corporate history: focusing on germany. *Western European Studies*, 2, 283-303.
- Choi, Jung-Ai (2005).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Around the Company that Compiled a Corporate History. Master's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eong, Byung-Jun (1994). Current status and usage of materials related to modern Korean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YKSA WA HYNSIL: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14, 281-312.
- Khang, Tongshik (2000). The Study on the Trend of the Business Records Management and the Business Histor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Deong Woon (1996). Korean business histo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ompany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44(4), 157-194.
- Kim, Deong Woon (2008). Company histories in Korea. *The Review of Bussiness History*, 23(2), 109-156. <https://doi.org/10.22629/kabh.2008.23.2.004>
- Kim, Hoo Jung (2006). Research about Effective Editorial Design Methods of Company Histories that Reflect Corporation-image Strateg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Hwa Kyoung (2005). A Case Study of a Business Archives Managment: with a focus on Meritz.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im, Jae-Duk & Ji, How-Won (2001). *Creating readable judges*. Seoul: Life and Dreams.
- Kim, Jae-Nam (2002). The Key Function of the Business Archives Focusing on Compilation of the Company History.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 Kim, Jihyun (2014).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4(3), 105-12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3.105>
- Kim, Jihyun (2018). Records information service. theory and practice of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Compilation*. Seoul: Jo Eun-Gelter, 305-330.
- Kim, Yong-un (2005). Suggestions on the Compilation of Company Histories to Enhance Corporate Image: With a Focus

- on the Company History with a History of Over Twenty Year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Korea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ukbi.
- Kwak, kun-hong (2018). Utilization of archives in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centered on the 1970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209-233. <https://doi.org/10.20923/KJAS.2018.55.209>
- Lee, Eun Jin & Lee, Eun Jin (2019). The Compilation Procedure about the History of Private University and the Plan of Collection.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2(2), 43-56.
- Lee, Han-goo (2000). Pulication tendency of firms history in the development countires. The Review of Bussiness History, 15(2), 235-256.
- Lee, Han-goo (2001). A study of the publication tendencies of the histories of Korean firms. The Review of Bussiness History, 16(2), 197-215.
- Lee, Seung-eok (1999). Korean Modern History Materials from the Government Archives.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36, 21-24.
- Lee, Younghak (2002).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 265-278. <https://doi.org/10.20923/kjas.2002.6.265>
- Lee, Young-sook (2007).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7(2), 73-94.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2.073>
- Lim, Ki Sang (2011). Ways to Systematize Compilation of Administration History & Collecting of Administration Archives: Focus 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8). Standard for the Public Records Service Version 1.1. NAK 21 2018(v1.1).
- Park, Gyun-yong (2020).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national defense history book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Studies, 149, 155-189. <http://dx.doi.org/10.17934/jmhs.149.202006.155>
-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1).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vailable: <https://alio.go.kr>
-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1). Designated Public Institutions for 2021. Available: <https://www.moef.go.kr/>
- Seol, Moon-Won & Kim, Iek Han (2006).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tents based on relational structure of minutes of state council and records of ministries in the period of rhee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15-136.
- Seol, Moon-Won (2008). The Direction and Task of Record Information Service. Recorder (IN), 3: 11-19. Available: https://www.archives.go.kr/next/news/viewPublicationList.do?bg_no=82
- Seol, Moon-Won (2012). Directions of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documenting loca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317-342. <https://doi.org/10.16981/kliss.43.2.201206.317>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2(2), 163-1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63>

